



2019년
4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청소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발행인 정우석 / 편집인 이미영 / 발행일 2019년 4월 1일 / 54984 / 전주시 완산구 영광1길 16(3층) / ☎ 063) 905-0218 (fax 227-0650)

겨울을 이겨내고 신록을 기다리듯이



원장 남 상 팔
(전주공고)

안녕하십니까?

2019년을 맞아 새로 원장을 맡게 된 남상팔입니다.

먼저 단체의 발전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애쓰신 송승용 원장님과 오랫동안 사무처장으로 일해오신 임동연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겨울은 봄을 데리고 온다고 하듯이 어느 샌가 찬바람을 밀어내고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와 새 학년처럼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봄풀처럼 푸릇푸릇 생동감을 가지고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려 합니다. 맡은 일을 묵묵히 하며 교육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 저출산 고령화, 경제·사회 양극화 등 거시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교육계에서도 새로운 교육 철학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철학이 필요한 시기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너무 힘들어 하고 열정이 떨어져 있습니다.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이 넘쳐나는 공문에 시달리고, 무슨 신청서며 보고가 너무 많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의 기대치가 너무 커서 힘들어 죽겠다라는 아이들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아직도 사교육이 만연하지만 아이들은 학원 가기가 싫고, 학교 생활에도 그리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에는 몰두하지만, 수업 시간 집중력은 현저히 떨어져 있고, 아이들의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찌 아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은 목공 체험학습 등 진로·직업 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모사업도 시도해보려 합니다. 회원들의 힐링을 위한 '걷기'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통일한마당' 행사도 더욱 신명나게 하도록 노력하고,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단체들과의 연대와 교육계의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고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는 것은 문화원을 자주 방문해주는 것입니다. 나무가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기다리고 신록을 기다리듯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소중한 회원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변함없이 문화원을 믿고 사랑해주시는 회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욱 귀하게 모시고 문화원 행사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글 실는순서

- | | |
|--------------------------|---------------------------------------|
| 01 표지 - 섬진강장군목에서 | 06 교육논단 '고정관념, 이게 문제야' - 유평수 교수 |
| 02 인사말 - 남상팔 원장 | 08 2019년 주요 사업계획 |
| 03 시 - 정우식 이사장 | 09 서평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일곱 가지 교육 미신' - 문채병 |
| 04 원장 이·취임식 / 제48차 이사회 | 10 구담마을 매화 20리길 따라 - 황순진 |
| 05 교육이야기마당 / 향토 역사·문화 걷기 | 11 여성독립운동가 이야기1 |
| | 12 회원 동정, 행사 안내 |

[시로 대신하는 인사]

느티나무

정 우 식 (이사장)

늘티나무였구나.

썩을 조금 늦게 띄운대서
느티나무인 줄만 알았다.
오래 사귀어 보니
그이는 항상
껍질 두터운 제 살갓을
무수히 띄우고 있었다.

트고 트고 터야
크는구나.

이제야 알았다.
늘 띄우니까 느티나무인 것을.

그렇게 온동네 다 품는 거목으로
자라는 것도
자신을 늘상 띄우기 때문인 것을.
아프게 아프게
제 몸을 띄우면서
스스로 단단해진 자신의 벽을
쉽 없이 허물면서
날마다 밖으로 호흡하기 때문인 것을.



[시 쓴 이가 올리는 인사]

학교 화단에서 날로 커가는 느티나무를 보며 우리 사는 이치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어디 느티나무뿐이겠습니까? 모든 나무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누구나 품 넓은 거목으로 성장하려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안팎의 벽들을 부단히 뚫고 허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늘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새 원장님과 함께 문화원이 새롭고 활기차게 출범합니다. 회원님들 모두 늘 띄우는 나날이기를 기원합니다.

2019 출범식 / 원장 이·취임식 힘찬출발

- 남상팔 원장 취임 -

전북을 대표하는 교육 NGO로, 청소년문화와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해온 우리 문화원이 지난 3월 27일 (수) 저녁 6시, 문화원 교육실에서 2019년 출범식과 원장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된 남상팔 원장이 취임하였고, 김춘옥 선생님이 사무처장으로 함께 봉사해주시기로 하였다. 또 편집실장은 이미영 이사가, 교육연수국장은 김태관 선생님이 새로 맡아주시기로 하였다.

남상팔 원장의 유쾌한 에너지가 내내 분위기를 밝게 이끌어 힘찬 출범을 알렸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취임을 축하하였다. 특히 전주공고 관악부 학생들의 축하 연주는 열띤 환호를 받았다.

지난 2년간 직무를 수행해온 송승용 원장과 6년 간 맡아 애써온 임동연 사무처장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제 48차 이사회 개최 - 이사 7인 체제로 정관 개정

이사 정수 15인 → 7인 체제로 정관 개정

이미영 신임이사, 남상팔 원장 선임 / 이영식 감사 연임

제 48차 이사회가 2019년 2월 13일(수) 오후 6시에 우리 문화원 회의실에서, 정우식 이사장의 의사 진행으로 재적 이사 15인 중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2018년도 결산', '정관 개정', '이사, 감사 선임', '원장 선임', '2019년도 사업계획' 등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2018년도 결산의 건'은 2018년도 활동보고와 감사보고를 받은 뒤,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이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 정수를 '15인'에서 '7인'으로 개편하는 정관 개정안 역시 만장일치 의견으로 통과되었다.

정관 개정 후 2019년 3월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중, 김명희, 서진용, 장재성 이사는 연임되고, 강유희, 임동연, 송승용, 신성하, 최태숙 이사는 본인들이 사의를 표명해옴에 따라 이번 임기 만료와 더불어 임기가 종료되었다. 사임으로 꺾적이 된 이사 1인의 후임으로는 이미영 초대 이사장을 선임하여 이사직을 승계하게 하였고, 이영식 감사는 재선임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원의 임원진은 정우식, 김명희, 남상팔, 서진용, 이미영, 장재성, 정애영 이사 7인과 이영식, 이형미 감사 2인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문화원 운영규칙 제5조에 의거, 송승용 원장의 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원장으로 지금까지 우리 법인의 감사와 이사직을 수행하며 성실히 숨은 지도력을 발휘해 오신 남상팔 이사를 신임 원장으로 선임하였다.

2019년도 사업계획의 건은 '교육이야기마당'을 회원들의 재능 나눔 형식으로 추진하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으며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교육이야기마당

- '자기 도장 만들기'와 '스마트폰 활용 강좌' -

우리 문화원에서는 오랫동안 진행해온 교육이야기마당을, 올해부터는 회원들의 재능 나눔 형식을 결합하기로 하고, 1~2월에 회원들을 위한 강좌를 마련했다.

1월 10일~11일 이틀간 전각 작가 윤하용 회원(정읍교부초 교장)이 강사가 되어 [전각 자기 도장 만들기]를 지도하였다. 회원 열댓 명이 작품을 하나씩 만들었다. 연습들에 습득한 뒤 도장 인면에 이름을 새기고 옆면에 그림을 장식해 하나뿐인 도장을 소장하는 기쁨을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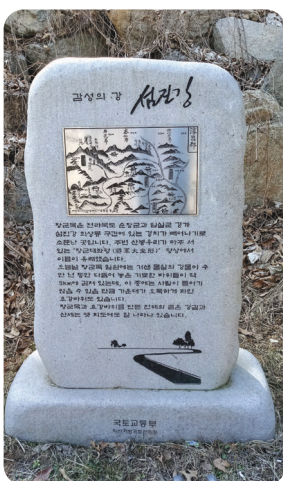
2월 22일(금)에는 역시 회원인 엄정영(정읍북면초 교감) 강사에게,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 교재를 중심으로,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13명의 회원들이 함께하며, 다양한 어플 사용부터 네이버폼을 이용한 설문지 만들기 등을 해보았다.

앞으로도 특별한 행사가 없는 달에 매월 1회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이 기대된다. 4월 24일(수)에는 매천 황현 선생 연구의 권위자인 김영봉 회원(박사, 전 완산고 교사)이 진행하는 '매천 황현 선생의 시와 사상' 강좌가 예정되어 있다.

[향토 역사·문화 걷기]

섬진강과 매화로 힐링

- 구담마을에서 장군목 요강바위까지 -



우리 문화원이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향토 역사·문화 걷기를 몇 년 만에 다시 시작하였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로 날짜를 정했다. 모두들 교육의 여러 현장에서 지친 마음을 힐링하고 싶었는지 뜻이 쉽게 모아졌다. 미세먼지로 찌든 몸과 마음을 도심에서 벗어나 산과 들, 강과 바다에서 조금이나마 씻어내고픈 열망도 담겼으리라. 여행 전문가이자 사진작가인 권오인 이사가 주관하기로 하였다.

부활의 첫 걸음은 섬진강과 매화를 따라 임실구담마을에서 장군목 길로 잡았다.

3월 둘째 주인 9일(토) 아침 9시, 전북도청 남문 주차장에서 16명이 차를 나눠 타고 상쾌하게 출발하였다.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듯 날씨는 오랜만에 상당히 맑았다.

구담마을에 차를 두고 내륙마을-장군목요강바위-구룡정 길을 왕복하였다. 점심 역시 힐링 음식. 장군목 가든 자연밥상으로 뱃속까지 말끔히 씻어냈다. 상세한 것은 10쪽 황순진 선생님의 감상문을 읽어 보시길...



고정관념, 이게 문제야!



유 평 수
(전주대 교육학과 교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경험, 지식, 생각,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나 느낌의 표현이 바른 경우도 있으나 잘못된 경우도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 연설가들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종종 고정관념 혹은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것을 누가 모르는 바 아니나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변화에 대한 강한 저항감에 쌓여 있어 쉽게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이고 편견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그것이 굳어버린 믿음으로 나타난 것을 고정관념(stereotype)이라 하고, 그 고정관념을 사람이나 물체, 사건들에 대한 느낌과 결합시킬 때, 이를 편견(prejudice)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으나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사람들은 역사적인 과정에서 자신, 가족, 부족, 국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 자기 집단에 대한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방인을 적으로 간주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선입견이,
굳어버린 믿음으로 나타난 것을
고정관념(stereotype)이라 하고,
그것을 사람이나 물체,
사건들에 대한 느낌과 결합시킬 때,
편견(prejudice)이라 한다

우리는 상대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이다. 외모, 출생년도, 혈액형, 체형, 출생지역, 성별, 피부색 등에 근거하여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다양한 특성들을 단순화함으로써 지각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장점은 있을지 모르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불공평하게 다루게 된다. 극한 경우에는 사람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사건을 야기하게 된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말살 시도, 월남전의 시민 대학살, 중동

의 폭탄테러, 9.11 테러 등이 그 예이다.

고정관념은 집단의 특성을 사실에 근거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집단에 대한 편향적 태도에 의해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한 한 개인을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정도는 한 개인의 경험 및 연령 증가와 비례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세상에서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하신 어르신들은 좀처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것들은 모두 틀린 것으로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나와 다른 것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고정관념은 집단의 특성을 사실에 근거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집단에 대한 편향적 태도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후나이 유키오는 성공하는 사람의 특성 중 하나로,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을 들고 있다. 앤드류 매튜스도 『멋대로 살면서 최고로 성공하기 10 계명』에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버리자’를 제 3계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다른 사람의 독특한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들의 성격이나 행동은 선천적인 유전인자와 후천적으로 받은 교육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와 다름을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교사는 학생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관리자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주인은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 자, 재산이 더 많은 자,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자, 더 나이가 많은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먼저 다가서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2019년도 주요 사업계획

1. 교육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

- 1) 연구소 역량강화
 - 부설 연구소 교육정책 연구 역량강화
 - 지역교육 정책 개발
 - 교육정책 토론회 활성화
- 2) 교육정책 토론회 / 교육이야기마당 / 세미나 / 워크숍
- 3) 초청 강좌
- 4) 청소년 정책 개발 및 대안 제시
- 5) 교육복지 정책 개발

2.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 1) 지역 분원 건설 및 활동 기반 구축

3. 통일교육

- 1)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의 일상화
- 2) 북녘 어린이 쿵우유 보내기 사업
- 3) 학교 통일교육 지원

4. 교육행정 감시

- 1) 정보공개청구 사업
- 2) 교육 현안 대응 사업

5. 일상사업

- 1) 회원 확대/소통 강화
- 2) 회의 체계 정비: 정기총회, 운영위원회, 확대 운영위원회
- 3) 이사진 활동 강화
- 4) 집행부의 업무추진 능력 고양
- 5) 홍보 활동 강화
- 6) 체육한마당
- 7) 향토·역사·문화 걷기/기행
- 8) 예비 교사를 위한 아카데미

6. 연대·대외협력 사업

- 1) 교육 관련 단체와 협력
- 2) 지역 청소년·문화·예술 단체 간 소통과 협력
 - :네트워크 구축
- 3)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 4) 지역 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 5) 대외 협력

2019 주요 사업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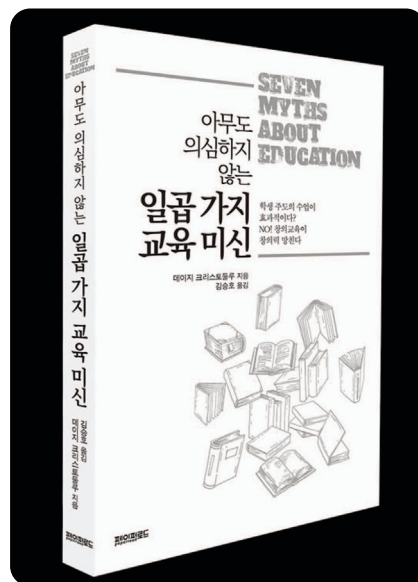
월	사업 내용
2	• 내부감사 • 이사회 • 정기총회 • 교육이야기마당
3	• 향토 역사·문화 걷기 • 2019 출범식/원장 이·취임식
4	• 향토 역사·문화 걷기 • 향토 역사·문화 기행 • 통일한마당 준비위원회 구성 • 교육이야기마당
5	• 향토 역사·문화 걷기 • 이사회 • 교육정책 토론회
6	• 향토 역사·문화 걷기 • 제19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 교육이야기마당
7	• 향토 역사·문화 걷기 • 교육이야기마당 • 상반기 평가 워크숍
8	• 향토 역사·문화 걷기 • 이사회 • 회원/활동가 연수 • 교육이야기마당
9	• 향토 역사·문화 걷기 • 교육이야기마당 • 체육한마당(연대)
10	• 향토 역사·문화 걷기 • 교육이야기마당 • 교육정책 토론회
11	• 향토 역사·문화 걷기 • 향토 역사·문화 기행 • 이사회 • 교육이야기마당
12	• 향토 역사·문화 걷기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시상 • 교육이야기마당 • 회원/활동가 연수
연중	• 이사회, 운영위/집행부 회의 • 각 팀별 모임. • 연구소 정책연구 모임/회의. • 연대 활동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일곱 가지 교육 미신

문채 병 (이사)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각양각색, 천차만별, 생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적, 어디에선가는 유사한 선례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나마 나침반을 찾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작금 미래교육, 역량강화교육과 그 교수방법론을 둘러싼 설왕설래 논란을 두고 비판적으로 뜯아볼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지식교육을 확대시키려고 해왔고, 보수주의자들은 지식 확대를 반대해왔다. … 모든 학생들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사회정의이며,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사회와 정치 변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라면서 그동안 암기식 경쟁교육 피해의식에 배척됐던 진보적 지식관점을 회복시킨다. 진정한 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지식교육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일곱 가지 교육 미신』(데이지 크리스토폴루 지음, 김승호 역)이다.



저자는 다음 7가지, ‘① 지식보다 역량이 중요하다. ② 학생주도 수업이 효과적이다. ③ 21세기는 새로운 교육을 요구한다. ④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 ⑤ 전이 가능한 역량을 가르쳐야 한다. ⑥ 프로젝트와 체험활동이 최고의 학습법이다. ⑦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의식화 교육이다.’ 등의 주장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미신”이라고 지목한다. 각 장마다 폐해를 열거하면서 실증적 사례 실사구시로 교육 미신임을 밝힌다. 한마디로 거칠게 단순화하자면, 일관되게 관통하는 핵심은 “사실적 지식 대(對) 그 외의 것을 정반대의 측면으로 상정한다. 사실적 지식은 나쁜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좋은 것으로 상대화한다. 사실적 지식을 의미, 이해, 추론, 의의, 상상력, 창의성과는 정반대 개념으로 본다.”는 비합리적 미신에 도끼를 든다.

사실적 지식에 대한 과도한 암기식 주입교육 고착화가 문제이지 사실적 지식 자체는 죄가 없다. 역량교육은 지식교육을 빼고 대충 열기설기 성취되는 어설픈 대상이 아니다. 미래교육, 역량교육은 지식기반 위에서 꽃피울 수 있다. 사실적 지식과 역량교육 관계는 이분법적인 흑백, 선악의 선택 논리가 아닌 선후, 경중, 완급의 문제이다. 정도(程度)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밥만 너무 편식한다고 해서 밥상에서 밥그릇을 빼버리고 반찬만 줄 거냐? 중용의 자세를 떠나면 삶이 피폐해지고 정책은 해악만 남는다. 대중요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책이 던져준 물음 자체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 물론 많은 논쟁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특히 교육전문직이든, 교사든 불문하고 말로는 시대정신 운운하며 지식교육을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역량교육을 과잉 역설(力說)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 자녀만큼은 지식교육에 몰입하고 있다면 언행불일치를 넘어 교육 기만이다. 읽어보고 성찰을 하든, 서로 맞장을 뜨든 그 자체로 유익한 책이다.

구담마을 매화 20리 길 따라

황순진 (회원)



경칩이다. 우리는 기지개를 켜고 싶은 날이지만 연이은 우리 지역 미세먼지가 내 마음을 뿌옇게 한다. “오늘은 바깥 활동은 삼가시오!” 에서 보통인 날!

2019년 청소년교육문화원 첫 향토 문화 순례길을 답사하기 위해 9시 도청 남문에 모였다. 아침은 조금 쌀쌀했지만 시야가 트여 모처럼 걷기 좋은 날이다.

전북 임실 천담 마을을 지나 구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낸 매화향이

은은하다. 매화 향기는 낮보다는 해가 질 녘에 향기를 더 품어 낸다고 한다. 지난겨울은 눈도 없고 포근한 날씨였다. 섬진강 상류인 이곳은 물이 맑고 물살이 빨라 송사리, 피라미들이 떼 지어 놀고 있다.

구담마을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장구목은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전원주택도 예쁘게 들어섰다. 자전거 길도 만들어져 주위를 둘러보기가 편하다. 이곳 전망대에서 순박한 네 자매를 만났다. 아름다운 자연 놀이터에 우리가 이방인이 되어 방해한 것 같아 미안하다. 아이들은 물과 언덕과 바람을 벗 삼아 놀고 있다. 뽕망거리는 눈빛과 햇볕에 그을린 까만 얼굴이 마냥 건강하고 행복해 보여 좋다.

“강가에 봄까치꽃과 광대나물도 쑥 나왔네.” 라고 놀란다. 봄의 전령사인 매화 그늘 아래 쑥도 이쁘게 고개를 내밀고, 요강바위 앞 현수교도 물결 따라 출렁출렁 거리고 섬진강 따라 자전거 길을 찾은 손님들도 시원하게 달린다.

맑은 강물에 낚싯대를 드리운 강태공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가 보다. 가족 모임, 동호회 모임도 많아 모처럼 장구목이 활기가 돈다. 장구목 가든 입구 홍매화와 노란 복수초꽃이 우리를 반긴다.

점심은 장구목 가든에서 농가 밥상을 정갈하게 차려낸 안주인의 음식 솜씨가 돋보인다. 쑥과 사과를 무쳐낸 샐러드 한 접시에는 “봄이 왔어요. 상큼하죠?”라고 말하는 듯했고, 접시마다 습습한 맛과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건강한 밥상이다. 후식으로 목련꽃 차와 산수유꽃 차를 우려낸 주인장의 투박하고 구수한 우스갯소리에 정감이 넘친다.

용굴산(용골산) 주변 둘레길에는 마음을 씻고 가라는 구룡정(龜龍亭)이라는 팔각정자가 있다. 가는 길 따라 정원의 이름표가 있다. 단풍원 자갈길을 걷다 보니 땀과 함께 정담도 깊다. 지난 가을에 피고 진, 마른 구절초 꼬투리는 지금도 그 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함께한 벗들은 평온해보여 투정도 할 수 없다. 용굴산 중턱에는 소나무와 너른 바위가 어우러져 풍광이 아름답다.

섬진강 상류 강물 따라
매화향기 맡으며 걸었던 20리 길!
굽이굽이 돌아온 구담!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머무는 요강바위!
매화향은 구담에 머무르고 강물은 바람결에 더 맑다!



여성독립운동가 이야기 1

【편집자 주】 여기 수록하는 여성독립운동가 이야기는 『조선의 딸 총을 들다』(정운현 인문서원, 2016.) 책에서 발췌 요약하였다. 계속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이다.

수많은 여성들이 의병운동과 항일독립투쟁에 나섰지만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항일 무장투쟁에 나선 여성들은 더 그러했을 터이다. 몇 년 전 영화 '암살'에서 여성독립군 저격수인 안윤옥이 나오면서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마침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집중 조명한 이 책이 세상에 나와 조금이나마 갈증을 해소해준다.

앞서간 선배 여성독립투사들의 치열했던 삶을 읽노라니 가슴이 뜨거워진다.

책에서 다룬 스물 네 분의 여성독립운동가 중에서 몇 분의 삶만 짧게 정리해본다.

1. '여자 안중근' 남자현

영화 '암살'의 안윤옥(전지현 분)의 실제 모델이었던 남자현(1872~1933).

남자현은 소위 양반집 가문인 안동에서 태어나 열아홉에 영양으로 시집을 갔다. 그러나 남편인 김영주가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일어난 의병부대에 가담, 전투에서 사망하자 독립운동에 온몸을 던진다. 유복자를 키우던 남자현은 1905년, 부친이 의병부대를 조직하자 의병 조직과 일본군 동태파악에 나선다.



46살에 서울로 올라온 남자현은 3.1운동에 가담하였다. 남자현은 3.1만세운동에서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설 수 있는 무장항쟁의 필요성을 느끼고, 1919년 중국 요녕성 통화현으로 아들을 데리고 망명하여 서로군정서에 가입한다. 아들 김성삼을 신흥무관학교에 입학시켜 독립군 교육을 시켰다.

남자현은 1926년 순종이 승하하자, 초대 조선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가 창덕궁에 조문을 올 것을 알고 사이토를 차단하기 위해 창덕궁 주변 탐색에 나선다. 그러나 같은 목적으로 미리 거사를 한 송학선 의사가 실패하자, 할 수 없이 만주로 되돌아간다.

1931년엔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제를 조사하고자 만주에 온 국제연맹 조사단장 '리튼'에게 남자현은 왼손 무명지 두 마디를 잘라 '조선은 독립을 원한다.' 라고 혈서를 쓴 후 무명지와 함께 보냈다.

1933년 봄, 일본 관동군이 세운 괴뢰정부 만주국 건국기념일에 관동군사령관 무토 노부요시 육군대장이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남자현은 무토를 차단하기로 결심한다. 61세의 남자현은 몸에 권총과 폭탄을 숨기고 하얼빈 역으로 가던 중, 밀정의 밀고로 일경에 체포당한다.

하얼빈 일본영사관 감옥으로 끌려간 남자현은 혹독한 고문으로 6개월을 보내면서도 단식투쟁으로 일제에 항거하다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닷새 만에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였다.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렸던 남자현은 1967년 하얼빈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3월 신입회원 환영합니다.

김선화(어린이집 원장)

김정호(변호사)

장순례(시민)

회원 동정, 행사 안내

▶ **‘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는 3월 15일 총회를 열어 공동대표(송병주, 이미영)와 사무국장(송승용)을 선출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농촌교육 대안 마련을 위한 지역간담회, 지역 간 네트워크 마련 등을 위하여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 노력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이사장 강윤희)이 지난 1월 2일, 익산시 부송동 사무실 시대를 끝내고 중앙동(익산역 앞 노스페이스 3층)으로 옮겨 새 등지를 틀고 힘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아이행복’은 ‘해돋이 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면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함열 향교와 함께 하는 청소년들의 전통문화 교육 사업에도 매진한다고 합니다.

▶ 지난 3월 1일 7시 30분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열린 **“3.1 운동 100주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념행사”**(전주 YMCA 등 주최)에 본원 이미영, 정은숙 이사님이 함께 하며 3.1 정신과 평화통일을 기원하였습니다.

▶ 전북 청소년교육문화원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대표 이미영)에서는 청소년과 지역교육에 관심 있는 정책위원을 모집합니다. 교원, 시민, 누구나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연락처: 246-6289, 010-2602-6289

♣ 4월 행사 안내 ♣

4월 향토 문화 걷기

일시 : 2019. 4. 13(토) 오전 9시
도청 남문 주차장 출발

장소 : 완주 경천 신흥계곡

완주 신흥계곡 길을
4월 봄 산과 개울 물소리 들으며
걸읍니다.

회원, 시민, 누구나 환영합니다.

▶ 회비 : 1만원(점심 포함)

▶ 신청/문의 : 905-0218, 010-7132-4606

4월 교육이야기마당

매천 황현 선생 연구의 권위자인
김영봉 박사님을 모시고
‘매천의 시와 사상’을 이야기해봅니다.
회원, 학생, 누구나 환영합니다.

일시 : 2019. 4. 24(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실
(전주 근영여고 앞)

▶ 주제 : 『매천 황현 선생의 시와 사상』

▶ 강사 : 김영봉 박사